

# 滋陰健脾湯의 方劑構成 및 臨床活用

윤용갑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Clinical application and compatibility of JaYumKeonBiTang(滋陰健脾湯)

Yun Young Gab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Wonkwang University

JaYumKeonBiTang(滋陰健脾湯) was recorded in "Manbyungwhachu"(萬病回春); medical treatment book 1587 at first.

It was composed by some common - used basic prescriptions; "PalJinTang"(八珍湯), "YiJinTang"(二陳湯), "JeonGjiWhan"(定志丸), "EuckGunJaTang"(六君子湯), "SaengMacSan"(生脉散) etc. Therefore, JaYumKeonBiTang(滋陰健脾湯) is very useful as fallow oriental pathological condition: "SimBiHeoGeob"(心脾虛怯), "KiHeoDamSung"(氣虛痰盛), "GiHeylGooHeo"(氣血俱虛), "SimHeo"(心虛)

so JaYumKeonBiTang(滋陰健脾湯) is clinically applicated with dizziness, nausea, restlessness.

Key word : JaYumKeonBiTang(滋陰健脾湯), SimBiHeoGeob(心脾虛怯) KiHeoDamSung(氣虛痰盛) GiHeylGooHeo(氣血俱虛) SimHeo(心虛)

### I. 緒 論

滋陰健脾湯은 萬病回春(1587년, 공연)의 眩暈門에 처음 수록된 處方이며 構成내용은 白朮(1.5錢) 陳皮 白茯苓 當歸 (1.0錢) 白芍藥 生地黃 (0.8錢) 人蔘 半夏 白茯苓 麥門冬 遠志 (0.7錢) 川芎(0.5錢) 甘草(0.4錢) 生薑三 大棗二로 構成되어 있으며 東醫寶鑑에 기재된 滋陰健脾湯과는 藥物構成內容이 차이가 있다.

즉 東醫寶鑑에는 白朮(1.5錢) 陳皮 半夏 白茯苓

(1.0錢) 當歸 白芍藥 生乾地黃 (0.7錢) 白茯苓 麥門冬 遠志 (0.5錢) 川芎 甘草(0.3錢) 生薑三 大棗二 으로 되어있어 藥物의 用量과 構成藥物에서 다소의 상이한 점이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萬病回春에서는 當歸를 臣으로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半夏를 臣으로 構成한 점이 차이가 있다. 즉 萬病回春은 四物湯類를 臣으로 하여 滋潤補血의 作用을 취한 반면 東醫寶鑑에서는 半夏를 臣으로 하여 祛痰效能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白朮을 君으로 한 것과 生薑, 大棗를 사용한 것은 同一하며 佐藥에서의 半夏의 有無와, 川芎과 甘草에 분량이 다른 것이 構成에서의 차이점이다.

교신저자: 윤용갑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Tel : 063-850-6834 E-mail : yunyg@wonkwang.ac.kr  
접수: 2002/5/3 수정: 2002/5/28 채택: 2002/6/15

<표1> 滋陰健脾湯의 方劑構成藥物에 대한 비교

| 구분 | 萬病回春(1587年)      |       | 東醫寶鑑(1613年)   |       | 비 고                |
|----|------------------|-------|---------------|-------|--------------------|
|    | 構成藥物             | 분량(錢) | 構成藥物          | 분량(錢) |                    |
| 君  | 白朮               | 1.5   | 白朮            | 1.5   | 君藥 동일              |
| 臣  | 陳皮 白茯苓 當歸        | 1.0   | 陳皮 半夏 白茯苓     | 1.0   | 臣藥의 차이<br>生地黃→生乾地黃 |
|    | 白芍藥 生地黃          | 0.8   | 當歸 白芍藥 生乾地黃   | 0.7   |                    |
| 佐  | 人蔘 半夏 白茯苓 麥門冬 遠志 | 0.7   | 人蔘 白茯苓 麥門冬 遠志 | 0.5   | 半夏의 有無             |
| 使  | 川芎               | 0.5   | 川芎            | 0.3   | 甘草, 川芎의 用量차이       |
|    | 甘草               | 0.4   | 甘草            |       |                    |
|    | 生薑 三 大棗 二        |       | 生薑 三 大棗 二     | 同一    |                    |

그 主治를 살펴보면 “臨事不寧 眩暈嘈雜 此心脾虛怯也 此治氣血虛損 有痰 作眩暈之仙劑也”라 하였듯이 病理의 原因은 心脾虛怯, 氣血虛損, 痰飲이며 主治는 眩暈嘈雜, 臨事不寧이다.

따라서 滋陰健脾湯을 構成하고 있는 처방내용을 분석하여 方劑構成과 病理의 연관성, 病理과 病症의 연관성, 主治作用과 構成方劑에서 상호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滋陰健脾湯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실하게 확립하고 이에 대한 臨床의 活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本 論

### 1) 滋陰健脾湯 構成에 관련된 基本方

滋陰健脾湯의 構成 藥物을 통하여 그 관련 처방을 분석하여 보면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로 構成된 ‘四君子湯’, 半夏, 陳皮, 茯苓, 甘草로 構成된 ‘二陳湯’, 二陳湯과 四君子湯이 合方된 ‘六君子湯’, 乾地黃, 當歸, 白芍藥, 川芎으로 構成된 ‘四物湯’, 四物湯에 四君子湯이 合方된 ‘八珍湯’ 등이 그 基本 構成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人蔘, 白茯苓, 遠志는 ‘定志丸’에서 石菖蒲가 去해진 것이며, 人蔘, 麥門冬은 ‘生脉散’에서 五味子

가 去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生薑과 大棗는 藥의 氣味 및 諸藥을 調和시키는 作用을 한다.

따라서 滋陰健脾湯은 四君子湯, 二陳湯, 六君子湯, 四物湯, 八珍湯, 定志丸類, 生脉散類 등 七개의 基本方이 一部 및 전체가 合方되거나 加味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 滋陰健脾湯 構成에 관련된 基本方

| 구분 | 構成藥物            | 분량(錢) | 연관處方의 構成   |
|----|-----------------|-------|--|
| 君  | 白朮              | 1.5   | 四君子湯(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 補氣補脾<br>二陳湯(半夏, 陳皮, 茯苓, 甘草) - 祛痰 |
| 臣  | 陳皮 半夏 白茯苓       | 1.0   | 六君子湯(四君子湯合二陳湯) - 氣虛痰盛<br>四物湯(當歸, 白芍藥, 乾地黃, 川芎) - 補血      |
|    | 當歸 白芍藥 生乾地黃     | 0.7   | 四君子湯(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 補氣<br>八物湯(四君子湯合四物湯) - 補氣血        |
| 佐  | 人蔘 白茯苓 麥門冬 遠志   | 0.5   | 定志丸(人蔘, 白茯苓, 遠志)去石菖蒲 - 安神益智<br>生脉散(人蔘, 麥門冬)去五味子 - 清肺補心   |
| 使  | 川芎 甘草 生薑 三 大棗 二 | 0.4   | 生薑 大棗 - 氣味 및 諸藥의 調和                                      |

<표3> 滋陰健脾湯 構成基本處方과 病理 연관성

| 구분    | 관련處方                | 관계病理 | 治 法      |
|-------|---------------------|------|----------|
| 滋陰健脾湯 | 四君子湯<br>定志丸去石菖蒲     | 心脾虛怯 | 補心脾 安神益智 |
|       | 四君子湯<br>二陳湯<br>六君子湯 | 氣虛痰盛 | 補氣祛痰     |
|       | 四君子湯<br>四物湯<br>八物湯  | 氣血俱虛 | 補氣血      |
|       | 生脉散去五味子             | 心脾虛  | 潤肺補心     |

### 2) 滋陰健脾湯 構成基本方과 이에 관련된 病理

滋陰健脾湯을 構成하고 있는 基本처방에 대한 관련 病理의 연관성을 조사해보면 <표3>에서 보는바와 같다.

즉 四君子湯과 定志丸類는 心脾虛怯에 活用할 수 있는 基本方劑이다.

四君子湯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虛弱해진 脾胃의 기능을 正常化 시킴으로써 음식물의 소화흡수 기능을 強化시키고, 이를 통하여 흡수된 水穀의 精氣를 에너지화 하므로써 전신적인 生理機能을 영위하는 作用이 있는데 이러한 작용을 보강시키는 것을 “補氣” 혹은 “補脾”라 하였듯이 補氣健脾의 基本方이다.

定志丸은 人蔘, 白茯苓, 白茯苓, 遠志, 石菖蒲로 構成된 方劑인데 補心氣, 安神, 益智, 寧神의 基本方이다. 그러므로 定志丸에서 石菖蒲가 去해져 다소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基本 골격은 心氣가 虛弱하여 發生하는 情神神經系의 諸證候群에 응용할 수 있는 方劑로 볼 수 있다. 四君子湯과 定志丸類의 合方은 心脾虛怯으로 인한 정신신경계 및 소화흡수 기능계의 弱화로 발생할 수 있는 食欲不振, 惡心, 嘈雜, 만성피로, 健忘, 怔忡, 驚悸, 眩暈 등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病理를 소위 “心脾虛怯”이라 하였다.

한편, 四君子湯과 二陳湯이 合方된 六君子湯은 氣虛痰盛에 活用되는데 “氣虛痰盛”은 脾胃가 濕痰을 조절작용이 있어 人體에 필요한 津液을 적절히 보충하게 되는데, 만약 脾胃에서 濕痰을 조절하는 기능이 弱화되면 濕痰이 脾胃에 많이 축적되므로 이것이 食欲不振, 惡心, 嘔吐 등을 생기게 한다.

또한 脾胃에서 흡수된 水穀의 清氣는 上升시키고 濁氣는 下降시키는 升降의 生理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濁氣가 上升하게 되어 眩暈, 惡心, 頭痛, 頭重 痰飲의 정체가 생기는데 이러한 病理 상태를 소위 “氣虛痰盛”이라 하며 이것을 치료하는 基本 처방이 六君子湯이다.

한편, 人體는 生命활동에 필요한 機能系 발현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질적 시스템 및 물질적 요소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기능적인 면과 기질적인 면을 補強하는 것을 소위 “補氣” 및 “補血”이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표방이 四君子湯, 四物湯이며 두 가지를 合方하면 八珍湯으로 氣血이 모두 虛弱해

진 경우에 活用할 수 있다.

또한 人蔘, 麥門冬은 生脉散에서 五味子를 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補心, 潤肺 作用이 있어 虛損해진 心肺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四君子湯, 定志丸類가 心脾虛怯을 치료하고 六君子湯이 氣虛痰盛을, 八珍湯이 氣血俱虛를 치료하고, 人蔘, 麥門冬은 清肺補心하는 作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滋陰健脾湯은 평소 氣血이 虛損한 사람이 心脾의 기능까지 弱화되어 惡心, 乾嘔, 食欲不振, 嘈雜 등 症狀과 더불어 매사에 입할 安靜을 찾지 못하고 眩暈이甚한 환자에게 活用할 수 있는 方劑임을 알 수 있다.

### 3) 滋陰健脾湯의 加味法

<표4> 滋陰健脾湯의 加味

| 발현증상  | 加味藥        | 作用     | 비고 |
|-------|------------|--------|----|
| 氣虛    | 人蔘         | 補氣虛    |    |
| 血虛    | 生乾地黃→熟地黃   | 補血虛    |    |
| 頭風    | 天麻, 防風, 荊芥 | 鎮靜     |    |
| 不眠    | 酸棗仁, 元肉    | 催眠     |    |
| 自汗    | 黃芪, 桂枝     | 汗腺분비억제 |    |
| 胸悶 煩躁 | 柴胡, 黃芩, 黃連 | 清熱, 鎮靜 |    |

滋陰健脾湯의 문헌기록에 나타난 加味法을 보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氣虛가 甚할 경우에는 人蔘을 君藥으로 3~5錢을 加하여 補氣를 돕고 血虛가 甚할 경우에는 生乾地黃 대신 熟地黃으로 補血하고 頭風이 甚하면 天麻, 防風, 荊芥등은 加味하여 鎮靜作用을 強化시키고 不眠이 있으면 酸棗仁, 元肉等을 加味하여 催眠作用을 助하도록 하였으며 自汗이 있으면 黃芪(3~5錢), 桂枝(0.8)을 加味하여 汗腺의 과다분비를 억제하도록 하였고, 胸悶, 煩躁등이 있으면 柴胡, 黃芩, 黃連 등 清熱瀉火之劑를 소량 加味하여 解熱·滋潤 및 鎮靜作用을 돕도록 하였다.

## IV. 요약 및 총괄

1. 滋陰健脾湯의 出典은 萬病回春으로 되어 있으며, 그 方劑構成이 萬病回春에는 四物湯類를 臣으로한 반면, 東醫寶鑑에서 六君子湯類를 臣으로한 것이 특징이다.
2. 滋陰健脾湯을 構成하고 있는 基本方은 四君子湯, 定志丸, 二陳湯, 六君子湯, 四物湯, 八珍湯, 生脉散類 등으로 볼 수 있다.
3. 滋陰健脾湯에 관련된 病理와 처방은 心脾虛怯에 四君子湯, 定志丸類를 氣虛痰盛에 六君子湯을 氣血俱虛에 八珍湯을 潤肺補心에 生脉散類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滋陰健脾湯은 氣血俱虛, 心脾虛怯, 氣虛痰盛 등의 복합된 病理에 의한 臨事不寧, 嘈雜 眩暈에 活用하는 方劑임을 알 수 있다.
6.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pp.74~75, 1988.
7. 康舜洙, 바른方劑學, 서울, 大星文化社, pp.338~339, 1996.
8. 彭懷仁,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642~643, 1996.
9.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實出版社, pp.302~303, 1985.

## 參 考 文 獻

1.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17~218, 1884.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203, 1996.
3.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서울, 醫聖堂, p.290, 2002.
4. 黃度淵, 國譯編註方藥合編 서울, 永林社, p.149, 1991.
5. 裴秉哲 編著, 標準臨床方劑學 서울, 成輔社, pp.227~228, 1995.